

## 생각 나누기    코로나가 이어준 가족의 이심전심

코로나가 절정기에 달했을 때 하루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당시 대구는 물론이고 전국은 충격에 빠졌다. 대구 최대 중심가이자 변화가인 동성로에 인적이 끊어지고, 전국 3대 시장인 서문시장이 시장 개설 이래 최초로 일주일간 전체 휴점을 하고, 시민들은 공포 분위기 상태에서 집콕(집에 콕 박혀 나오지 않는 상태)을 시작했다.

전국에서 의료진이 몰려오고 119구급대원들이 지원을 왔다. 코로나 대응 총력전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자원해 온 의료진이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호텔이나 여관방을 통째로 내어주는가 하면 철저한 위생관리로 급

식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급증했다.

아내도 우리도 뭔가 도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영양가 있는 식자재를 보내고 싶어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 는 수 없이 아내와 나는 기부금으로나 도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언젠가 어렵게 사는 분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폐지를 팔아서 모아 둔 돈을 기부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 뒀다. 통장을 확인하니까 100만 원이 넘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100만 원을 며느리 계좌로 송금하고 대구 코로나 치료지원 의료진에게 기부를 할 수 있

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 의료진에게 직접 기부할 방법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그렇다면 대구지역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공동모금에 지정 기부를 해달라고 전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아들과 딸도 부모를 따라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기부에 동참했다. 모두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뜻 기부에 동참해준 자식들이 기뻐 했다. 코로나19가 국가적 재앙이었지만, 코로나가 이어준 가족의 이심전심이었다.

정기 기부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내가 기부하던 회원 번호를 최근 아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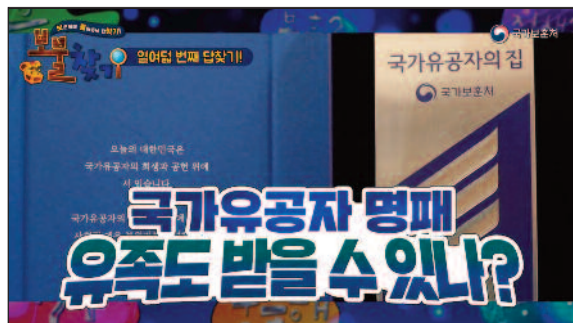
게 승계했다. 유산 상속 대신 기부금을 상속하는 것이 내심 미안했지만 웃으며 받아주는 아들이 고마웠다.

이제는 백신접종으로 국민적 재앙인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온 국민이 각자의 생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해 나가기를 기원하며 마스크 없는 새로운 봄날을 기다린다.

**김일태** 육군 대위로 전역해 해군에서 예비군 지휘관으로 일했으며, 해병대에서 정년퇴직했다.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됐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따뜻한 글을 쓰고 있다.

## 이달의 나라사랑 영상 콘텐츠

### 보물찾기, 국가유공자 명패사업 확대편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도 국가유공자 명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찾아가는 한방 주치의



국가보훈처는 애국지사의 건강을 위해 자생한방병원과 함께 '찾아가는 한방 주치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침 치료부터 한방처방까지 세심하게 살펴드리는 맞춤형 한방 주치의 사업 현장을 담았습니다.

### 서해수호용사들과 함께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대전현충원에서 생존장병과 국가보훈처장이 함께 묘역을 참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자리에 모인 서해수호용사, 영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다시웃는 제대군인



한 달에 한 번 발간되던 제대군인 소식지 '다시웃는 제대군인'이 올해부터 웹진으로 변경, 발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 나라사랑에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날말 맞추기

빈칸에 답을 채운 후 본인의 주소, 원하는 상품, 전화번호(필수, 상품 택배 발송용)와 함께 매월 20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매월 6명을 추첨해 건강식품(5명), 보청기(1명)를 보내드립니다.

주소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신문 E-mail edit@narasarang.kr Fax 044)866-6771



정관장 홍삼원(5명)



버나폰보청기(1명)  
보훈보청기(02-749-7995) 제공

### ■ 지난호(910호) 정답과 당첨자

보청기 △서울 영등포구 이명규

건강식품 △서울 서대문구 김옥영 △대전

중구 염종환 △경기 남양주시 신동균 △전

남 광양시 송관섭 △경남 창원 이익도

춘	분		중	묘
	골	뱅	이	
	쇄			태
	신	사		권
		전	라	도

**가로** 1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의 시호. 충○○.

3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합니다. 전○위○.

5 돈을 잘 쓰고 잘 노는 사람. 원래 무과에 급제하지 못한 호반을 뜻하는 말입니다. ○량.

6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감.

**세로** 2 우리나라 꽃. “○○○ 삼천리 화려강산~”

3 망루와 같이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든 ‘대’. ○망○.

4 여러 ‘위원’들 가운데 우두머리.

5 우리나라 고유의 옷.

명절이나 경사가 있는 날 주로 입습니다.

7 나이 든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은 부를 때, 나이가 많은 중년이 지난 남자 어르신을 부를때 씁니다. 영○.

### ■ 911호 문제

1	2			
			5	
3		4		
				7
		6		